지상법석

지혜와 용기 생깁니다"

내가 나의 중생심을 제도한다는 의지로
'게으르지 말자' 끊임없이 정진하십시오

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신상 안위를 위해 예불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부터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요.

남을 따라 절에가거나 남을 위해 찾지 마세요. 이웃사람이 지게짐 지고 시장보러 가니까 지게짐 짊어지고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송광사에는 심심찮게 외국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요새는 불교가 국제화 된 것이 분명한 듯 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스님네들 가운데에는 '한국 불교가 세계에서 제일이다' 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를 못 면하고 있는것입니다. 신도들도 외국에 나가보니 '한국불교가 최고더라' 고 말합니다.

은 바른 신심을 갖고 있는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절에는 평소에 노력하지않고 목마를때 우물을 파듯이 수능시험합격기도다 뭐다해서 절에 와서는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이 몸은 무상한 것입니다. 평소 같은 마음인 평상심이 필요합니다. 덧없는 존재로 언제 어느때 어떻게 되려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잘 만들어서 '내가 오늘은 헛되지 않게 지내야지' 하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책이 많이 나오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때 미사여구를 자주 사용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말 가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라고 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으로써 침략을 당하고 귀로 침략을 당하고 코로 당하고 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밥은 맛이 없으니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것은 입이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스스로가 기르는 아량을 가지게 된다면 부처님 말씀, 큰스님네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러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따라, 귀를 따라, 몸을 따라 거러지 노릇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

터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심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한 신심은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道)' 즉, 내가 나의 중생심을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친정이나 이웃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내 일은 내가 이룩한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몰랐던, 잊었던 보배를 다시 찾아서 무궁한 복락을 누리기를 나는 오직 바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열반에 드실때까지 '게으르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현행원품에 '나의 뜻은 저 허공이 다 할망정 다함이 없으니 끊임없이 수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천6백년 세월이 지난 오늘이지만 모든 신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신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을때 힘이생기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굳건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이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말씀 내것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이 신심
환경오염은 人災…근본 잃은 탐욕이 재앙 자초

한국에서는 제일 이라고 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 억지로이지만 스스로 칭찬을 해야 불자로서 자부심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좋습니까. 저는 한국이란 국토에서 밥을 먹고 걸어다니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도 소개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많이들 갖고 있지만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어떻게 하면 내것으로 만들어보나 하는 분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질문한 내용을 인용 했습니다.

사실 불자들 가운데는 절에 있는 산신각·칠성각을 찾아 다니면서도 '절에 다닌다' 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일주문에 당도해서는 "이절에는 산신각·칠성각이 어디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그런 분이 제가 있는 송광사를 찾아오시면 "산신각·칠성각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웅전 근처에 안내하시는 분이 있으니 가보세요. 부처님한테 절을 세번하면 아실 수 있을겁니다" 고 말합니다. 좀 짓궂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이전에 칠성각·산신각을 먼저 찾는것

데에서 몇마디가 나에게 다가왔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법문을 마치고 나가면 신도분들이 "스님, 오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대목이 좋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들 대답을 못 합니다.

"스님, 아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요.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더우기 절에 와 아무개 큰스님을 뵈었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스님을 관상장이로 만들어 버리죠.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있게 그 물음을 따라 그 진원지를 차근차근 물어들어가 보면 별것 아닙니다. 내 일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와 나는 어느때에 두터운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소견이 들만하니 살 날이 몇일 안 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며칠이나 자신있게 살다가는지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무(無)

> "이웃의 어리석음을
> 바꾸겠다는 마음이 신심입니다
> 나 아니면 누구도 먼저하지 않습니다
> 내가 먼저 수행정진 할때
> 한국불교는 희망적입니다"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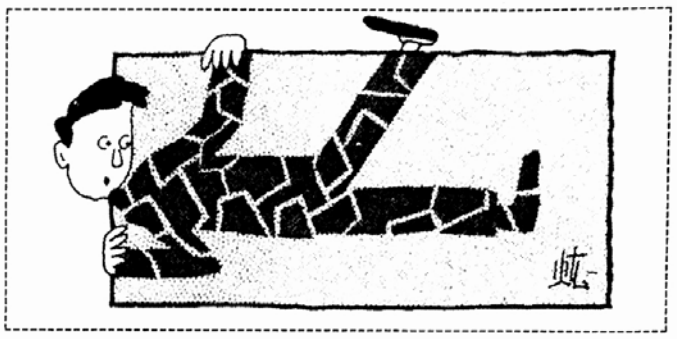
'여러분 신심을 가지십시요' 라고 하지마는 내가 나를 포기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됩니다.

이 몸은 얻기도 어렵지만 법문듣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게 실천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내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밥은 오래오래 씹을 수록 맛이 납니다. 그렇듯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오늘부

우리는 분명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제자로서 도리를 다 할 수 있나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 몸이 다하고 이 뜻이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오직 나를 찾는다는 결심을 해 한국불교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한국불교는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리석음을 바꿔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성실히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갑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4

양 형 진

상의상대(相衣相待)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를 만나게된다. 그 생명체들은 생명체가 아닌 것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들은 우선 종족 번식을 위하여 생식작용의 기능을 가지며, 개체의 성장이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신진대사 작용을 한다.

신진대사란 간단히 말한다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외부에서 섭취하고 생명 활동의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생리과정이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자유에너지(free energy)를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과정이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경우에, 이 자유에너지의 근원은 궁극적으로는 예외없이 태양이다.) 그리고 신진대사 과정은 이러한 자유에너지의 섭취뿐만 아니라, 노후된 우리 몸의 구성 요소들을 교체해가는 과정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 라는 이 몸은 외부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이

또한 공간상에서 어디까지를 '나' 라는 존재를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또한 공간상에서 어디까지를 '나' 라고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 라는 존재는 자성(自性)을 가진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인연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것 뿐이다. 또한 어떤 인연으로 어떤 개체가 이루어졌다 해도 독립적으로 개체의 생명이 영위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나' 는 '나' 아닌 것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의상대(相衣相待)라는 존재양식이다. 이러한 상의성이 생명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상의성이 생명체에게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우주의 모든 사물이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나' 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의 복합체
'이것있어 저것있다' 일체법 성립 원칙

공급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이시키기 위하여 외부의 산소를 끌어들여 호흡하여야 하는 존재이며, 몸의 구성 요소를 쉴 새없이 외부와 교체해 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나' 라는 존재는 '외부' 와의 밀접한 연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나' 이고 어디까지가 '나' 의 외부인가? 우선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몸 속에 잠시 머물다가 빠져 나가는 음식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내몸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의 폐나 위를 들락거렸던 그 많은 분량의 공기나 음식물이 다 내 몸이어야 하며, 그러한 음식물이나 공기를 이루었던 원소들은 다른 사람의 음식이나 호흡에 쓰였을 것이므로 나의 몸과 너의 몸의 구분은 없어지고 만다.

이와는 달리 그러한 음식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내몸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근육이나 내장, 혈액등 그 모든 것도 다만 나에게 좀 오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내 몸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서나 외부와 구별되는 '나' 라는 존재를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불교에서는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생하므로 이것이 생한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저것이 멸하므로 이것이 멸한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자성이 없이 오직 인연의 화합으로 잠시 이루어지는 것 뿐이므로 무상(無常)이다. 다시 말하면 연기(緣起)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용수보살은 중론 제8장 觀作者品 제12게에서 "업(業)으로 인하여 작자가 존재하고, 작자로 인하여 업이 존재한다" 고 하여 이러한 상의상대의 연기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렇듯 무자성하여 상의상대의 연기에 의해서만 일체의 법이 성립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空)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인연으로 생겨난 법(法)을 나는 공성(空性)이라고 한다. 이것을 또한 가명이라고도 하며 중도라고도 한다.(衆因緣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중론 제24장 18게)" 이를 청목(靑目)스님은 "…여러 인연이므로 무자성이요, 무자성이므로 공이다. 공도 또한 공한 것이지만 단지 중생을 위하여 가명으로 설한다. 유무의 이변을 떠나기 때문에 이름하여 중도라 한다…" 고 해설하였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緣 金無得 註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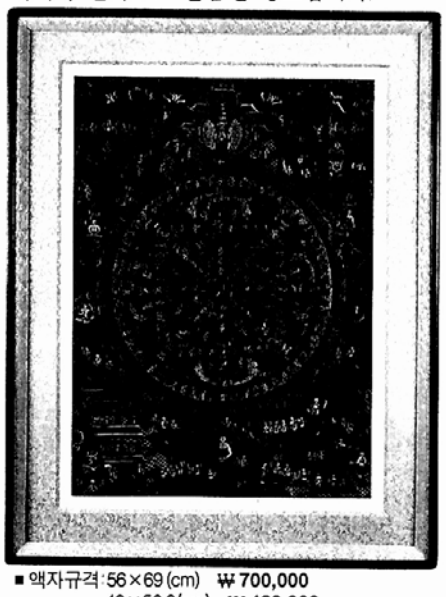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95 미술의 해 기념
불교미술특별전

티베트스님수작
진품 만다라

티베트 독립을 서원하는 스님들께서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여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출품한 성보입니다.



■ 액자규격 56×69(cm) ₩700,000
48×56.8(cm) ₩480,000

입체손자수
해수관음도

불교사상 최초로 출품한 입체손자수로서 한 올한올 수만번의 손놀임으로 완성한 불심과 공덕의 성품입니다.

■ 액자규격 68×113.6(cm) ₩330,000